



우리 말 예쁜 말



글, 그림

인천송의초등학교

1학년 1반 어린이



차 례

1. 낱말을 키우는 우리 반

2. 우리 말 예쁜 말

3. 낱말을 모아 문장으로

4. 어느 날 사과가 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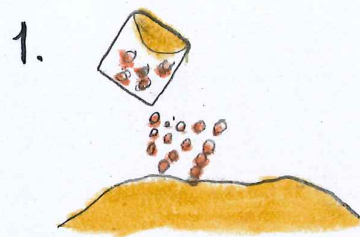
기
노
드
르
바
인
이
조
트
크
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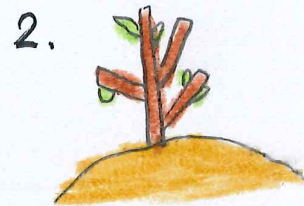
날말을
키우는
우리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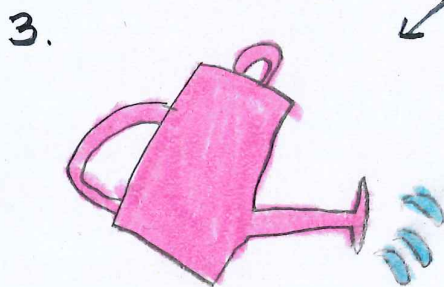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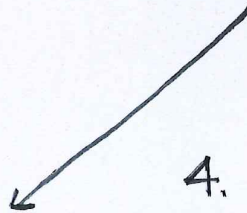
날말을 키우는 방법



땅을 파고
씨앗날말을 심어요.



싹이 나길
기다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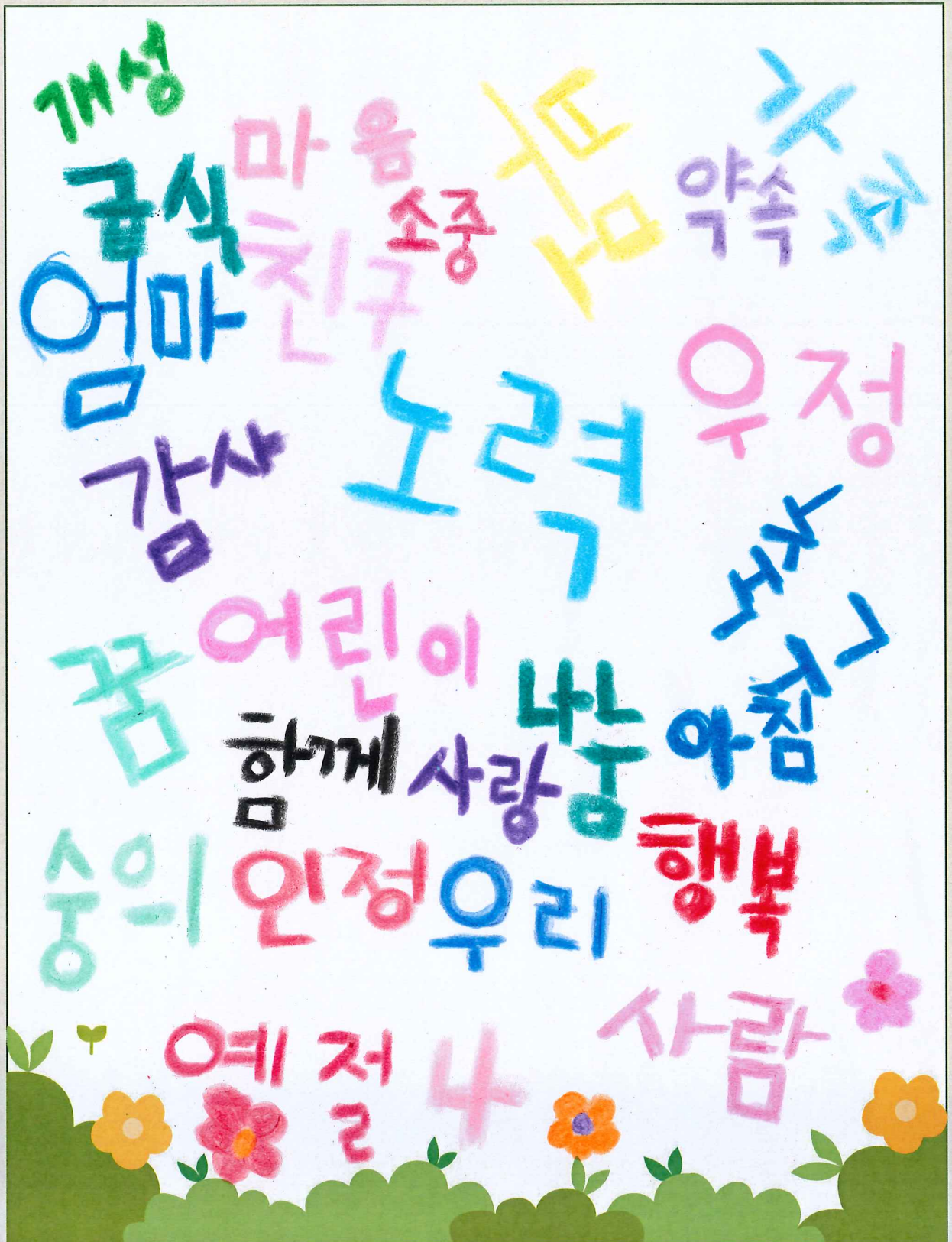


물과 양분을
듬뿍 줍니다



잘 자란 날말을
매일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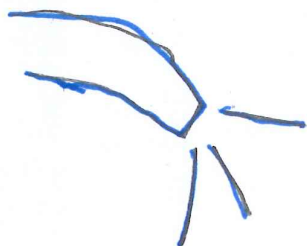
	마을에서	자라는	낱말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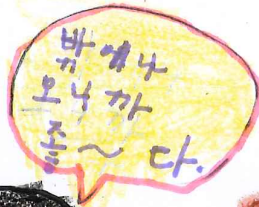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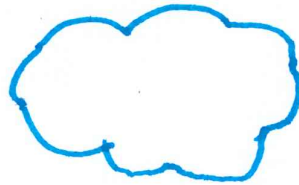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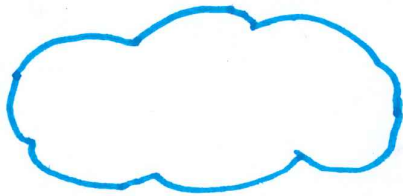


민지가 키우는 날마음 “어린 이”야.
나는 똑똑하고 멋진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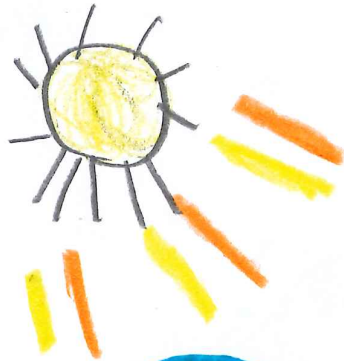
시아가 키우는 낚말은 "가족"이야
나는 가족이 가장 소중한해!





시월이가 키우는 나 말은 "친구"야.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람이가 키우는 날 많은 "부모"야.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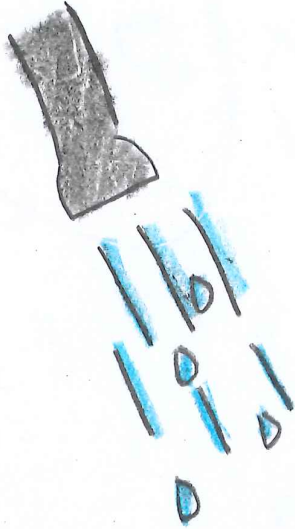
부엉이~!



→ 아빠, 어리가



강 비가 키우는 나무는 "개성"이야
나는 "개성" 있게 꾸미기를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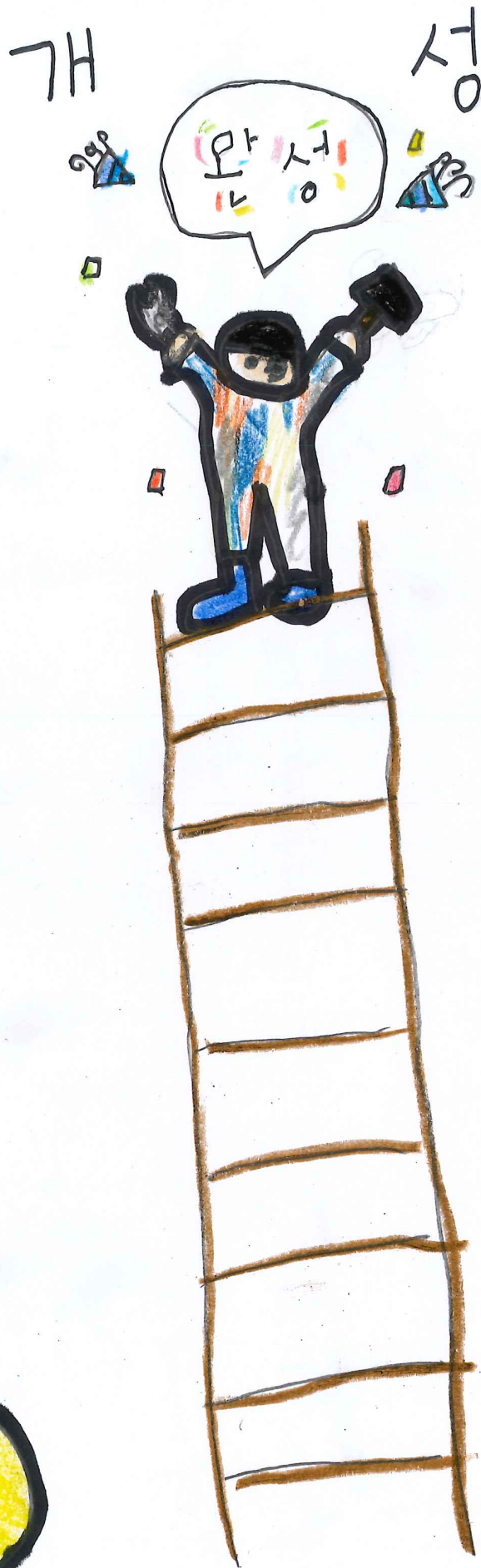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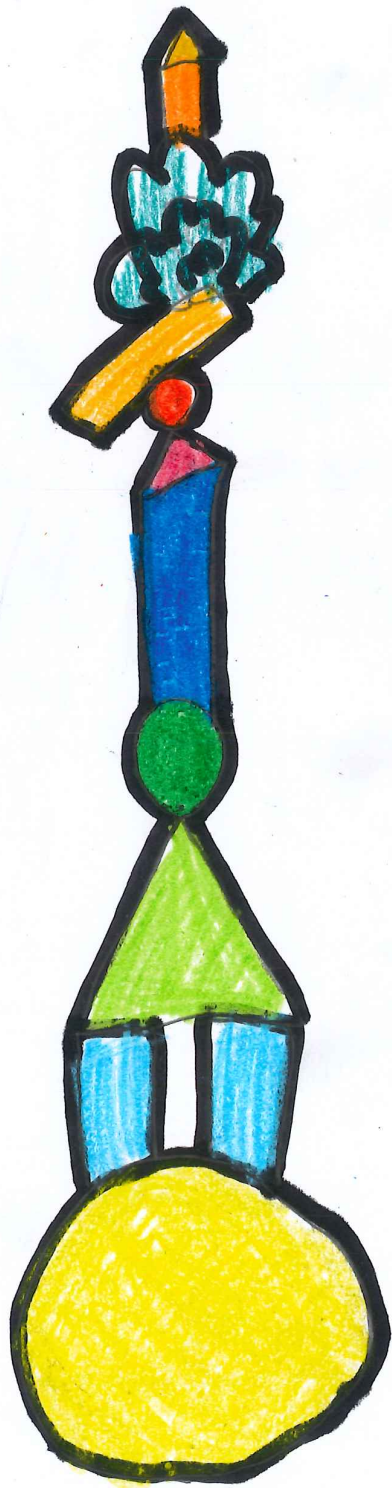


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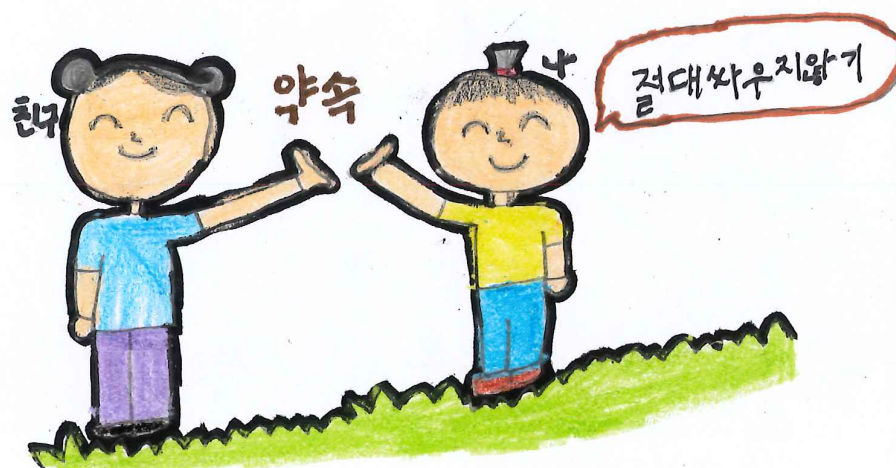
개성





아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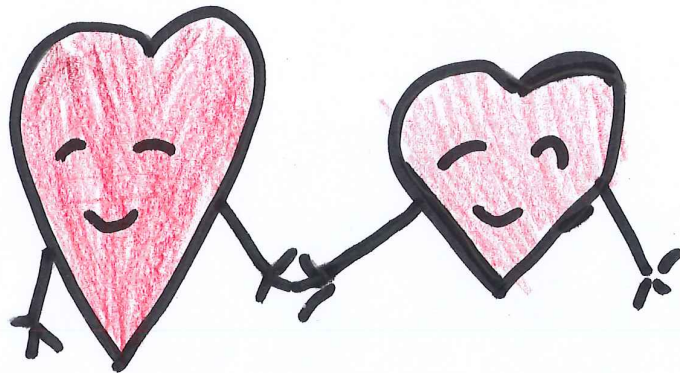




유주가 키우는 낱말은 "약속" 이야.
 나는 사이좋게 지낼 것을 "약속"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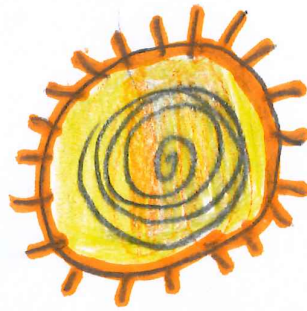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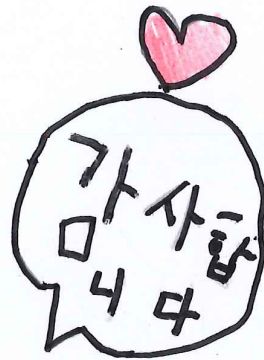
기안이가 키우는 날씨는 "사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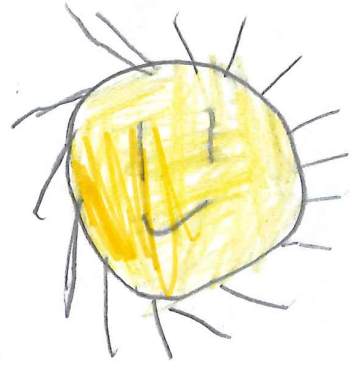


나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요원이 가 키우는 날말은 "감사"야.
나는 모든 것에 감사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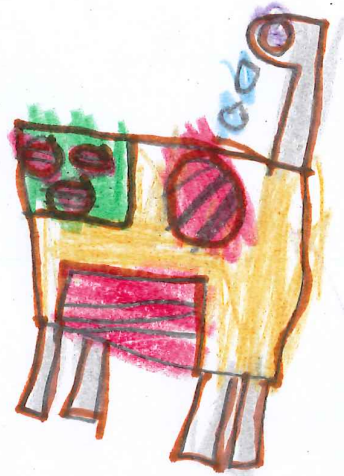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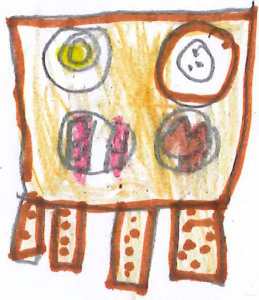
사람이 키우는
나는 입정 많고

나만
E 끝
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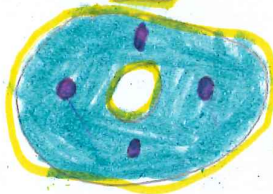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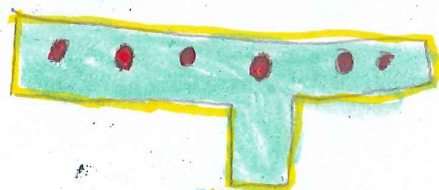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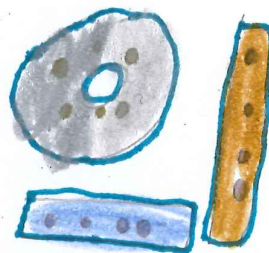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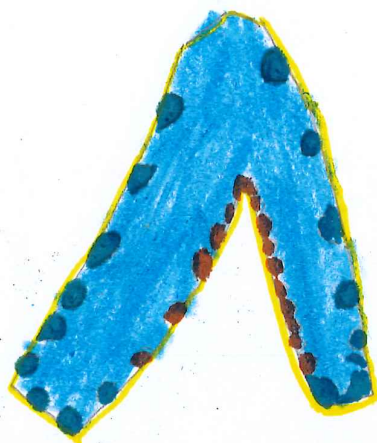
나만정
사람이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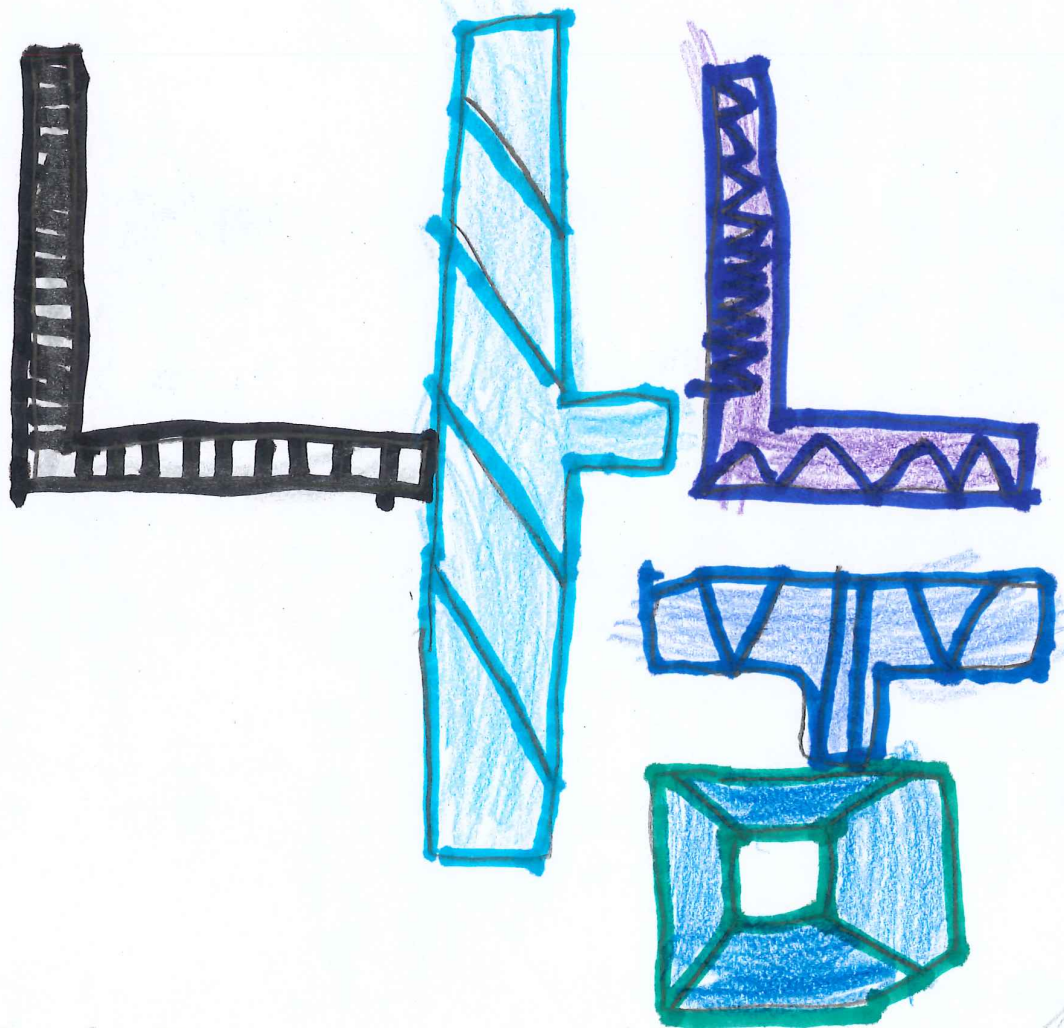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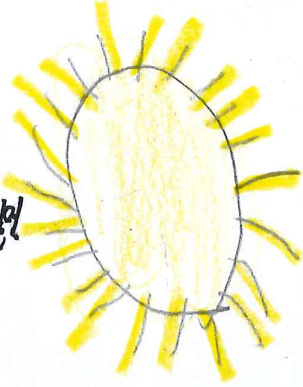
변이가 키우는 나 같은 "사람"
 이야.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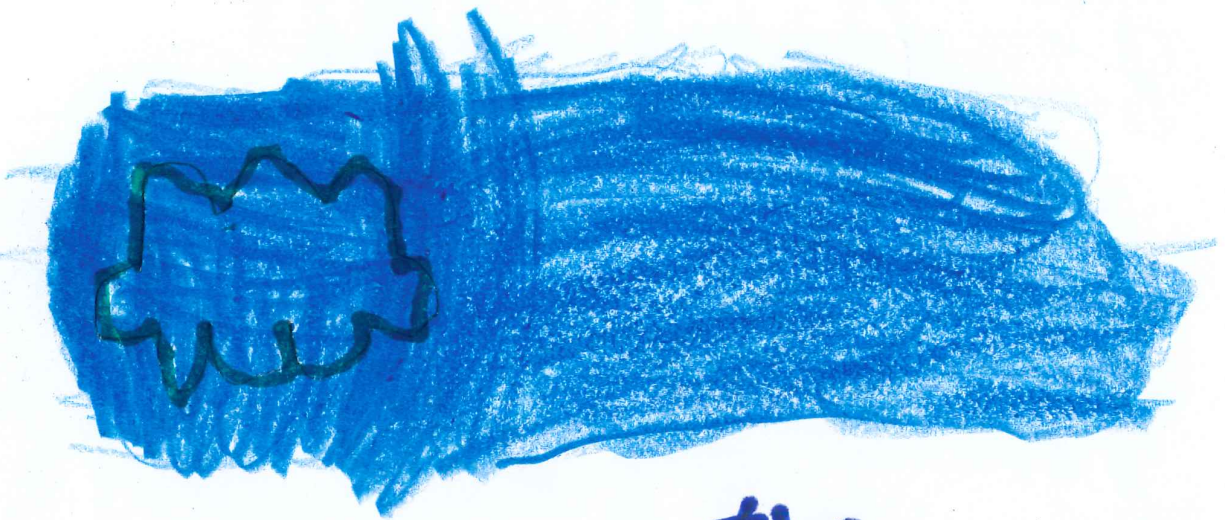


도희이가 키우는 나말은
 "수이아" 나는 "수이" 초등학교가
 자랑스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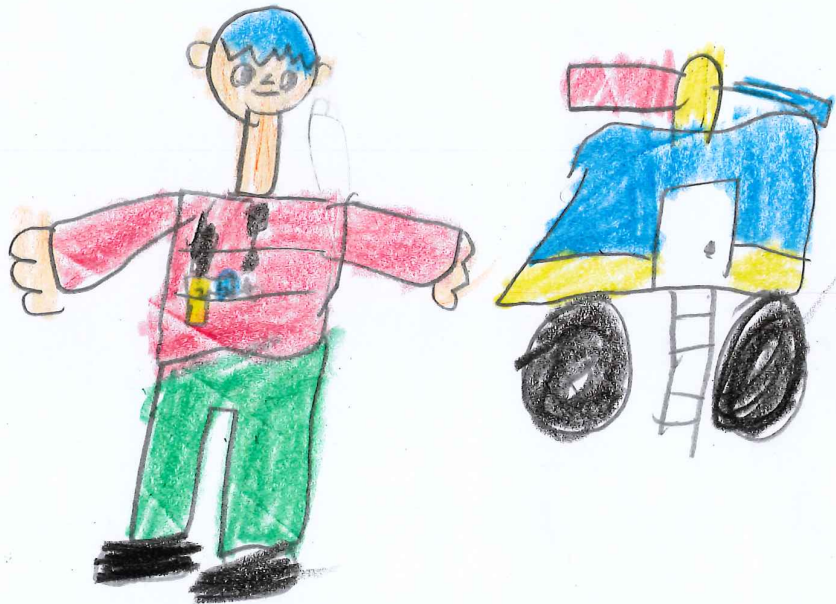
시우가 귀우는 날말은 "나눔"이야.
나는 따듯하게 "나눔"을 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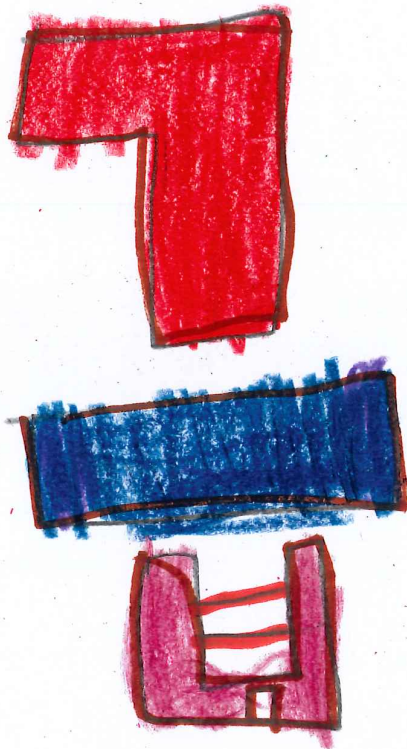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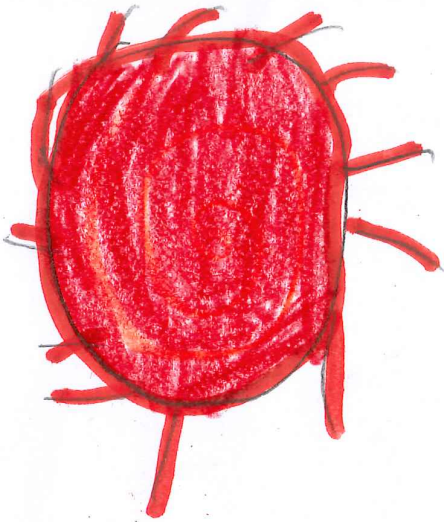




태민이 가꾸는 나만의 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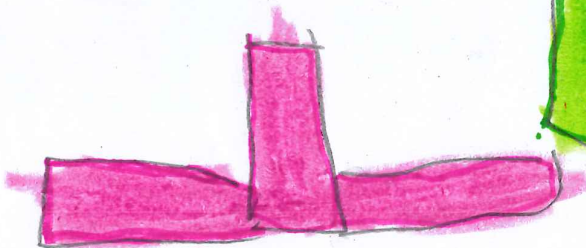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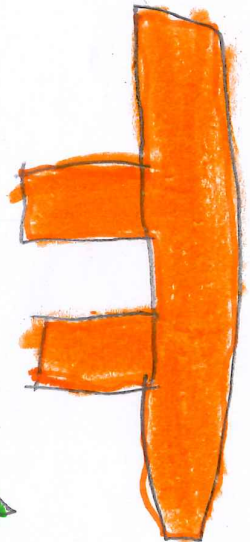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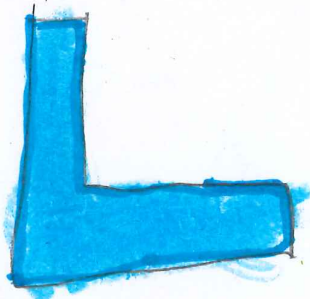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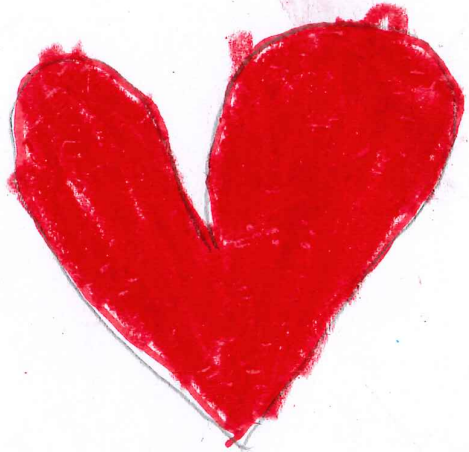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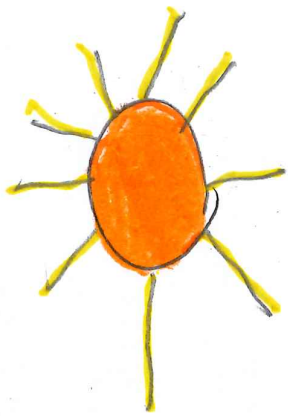
내 꿈을 경차이야!



정현이가 키우는 닭 말은 음식이야.
나는 맛있는 음식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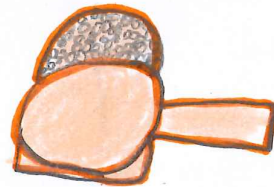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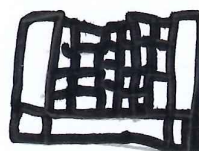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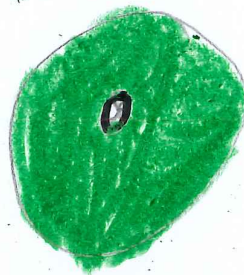
정찬이 키우는 날말은 “노력”이야
나는 꾸준히 노력 할 거야!



축구



서준이가 키우는 낚말은 “축구”야.
나는 형아랑 축구를 하고 싶어



하울이가 키우는 나쁜 말은 "우리"야
나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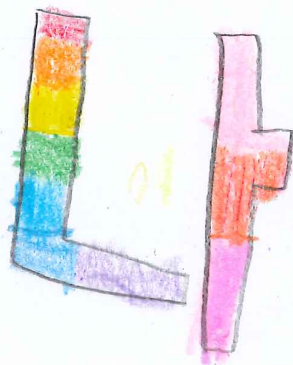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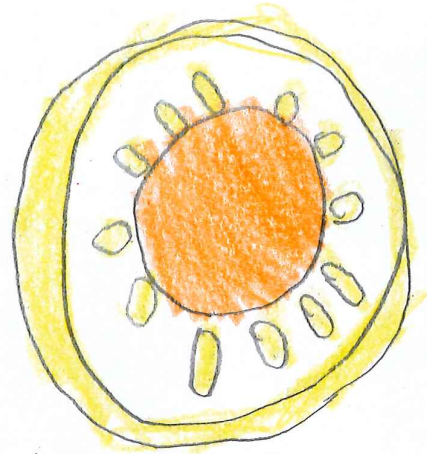


태 인 이가 키우는 날^음화^음침 이야.

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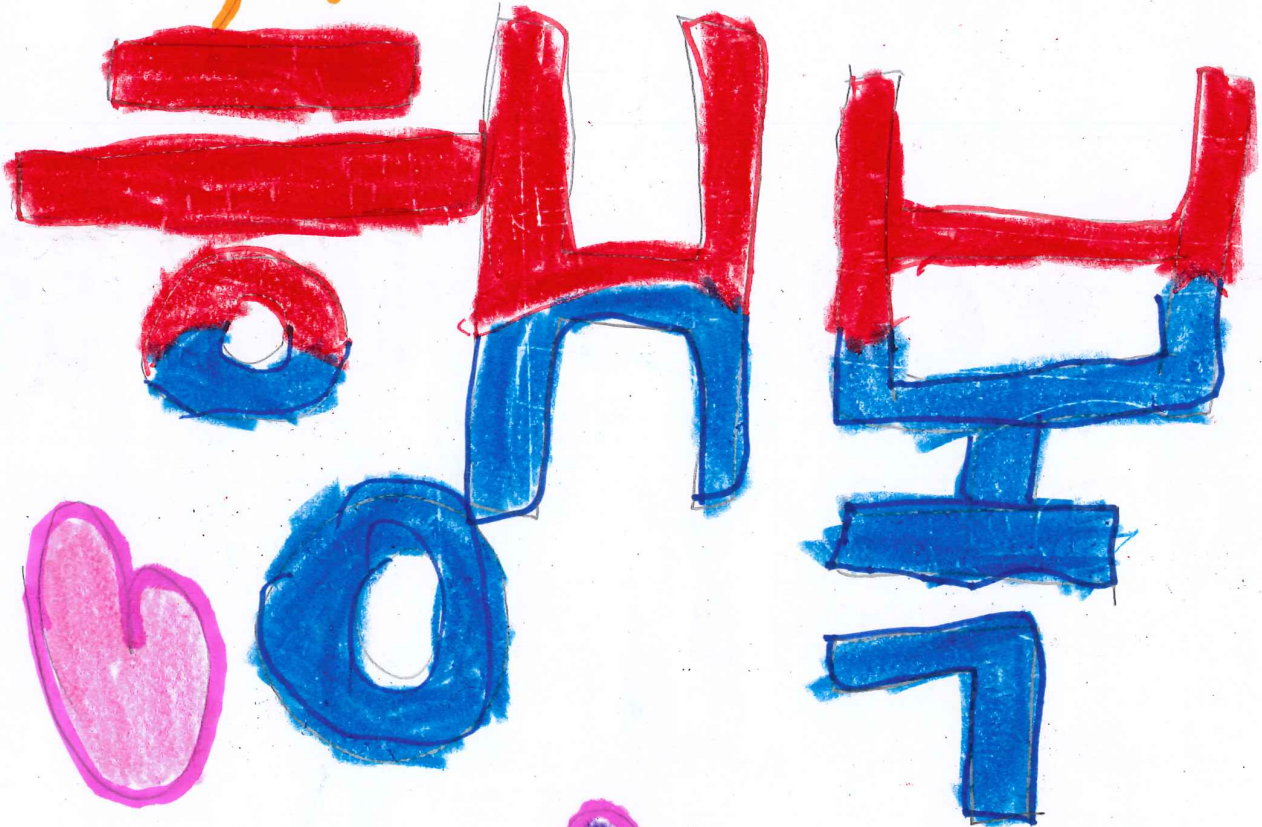
나는 화교 가는 "아침"이 좋아.



이수가 꺾는 낱말은 “나”야.
 나는 무지개를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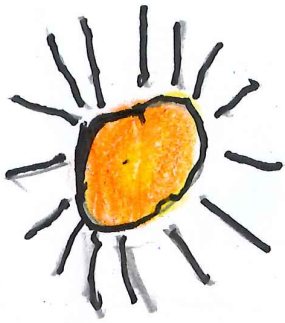
무지개가
예쁘다



근운이가 키우는
날-말은행복'이야.

나는'행복'한사람이
되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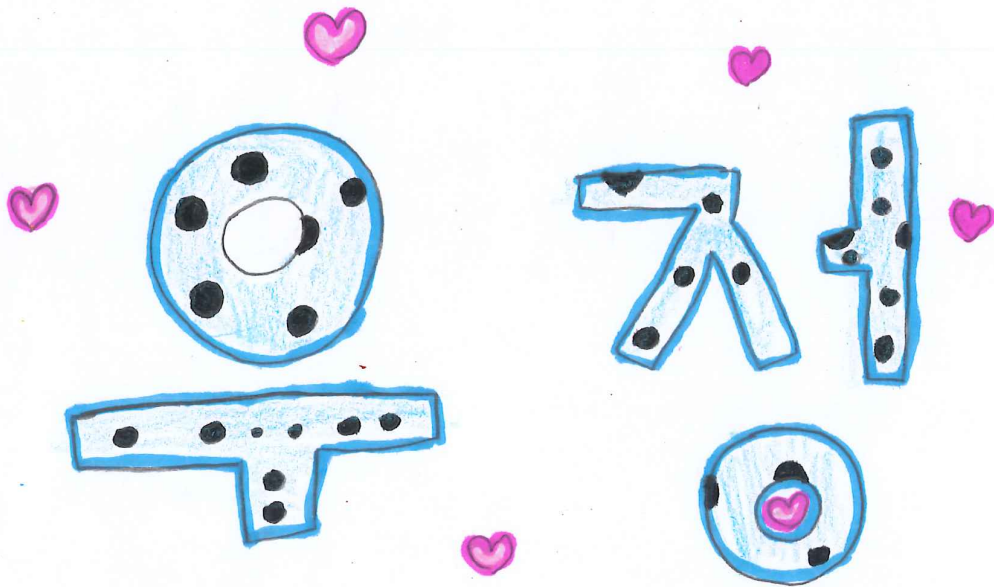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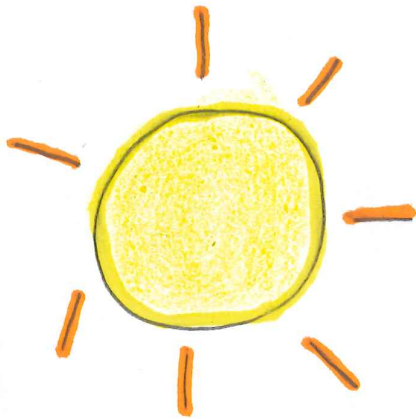






손끝이 가 키우는 나무도 "함께"야.

나는 '함께'로 멋있게 키울 거야!



아린이가 키우는 날 말은 “우정”이야.

나는 친구들과 “우정”을 키울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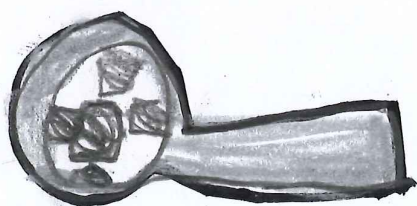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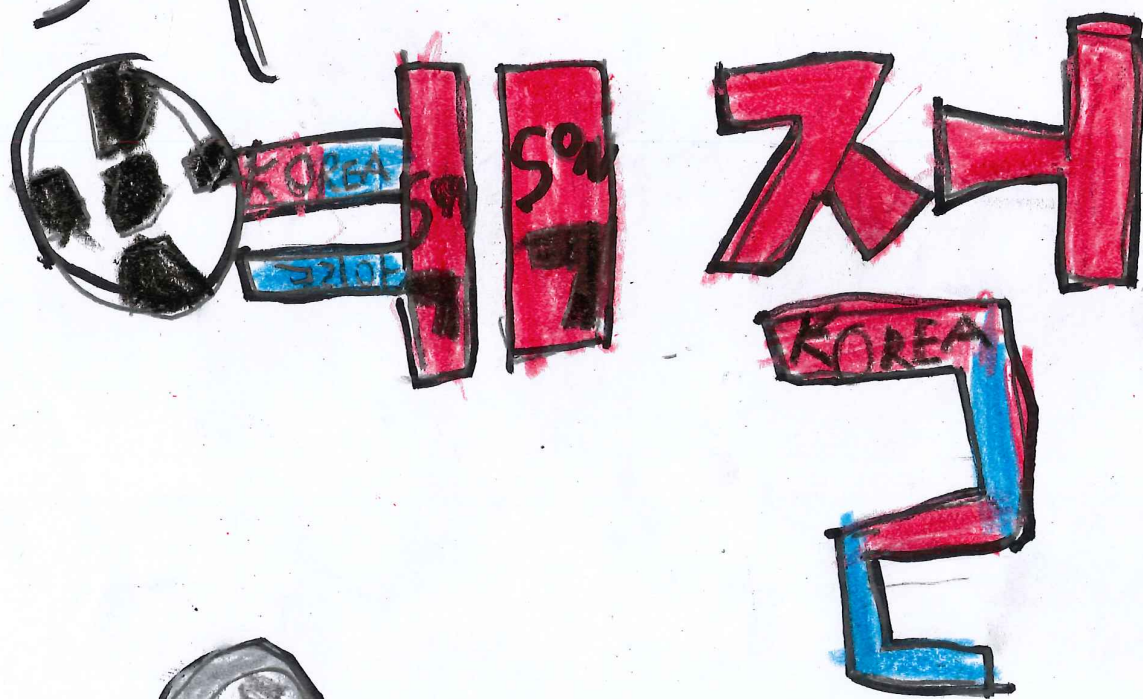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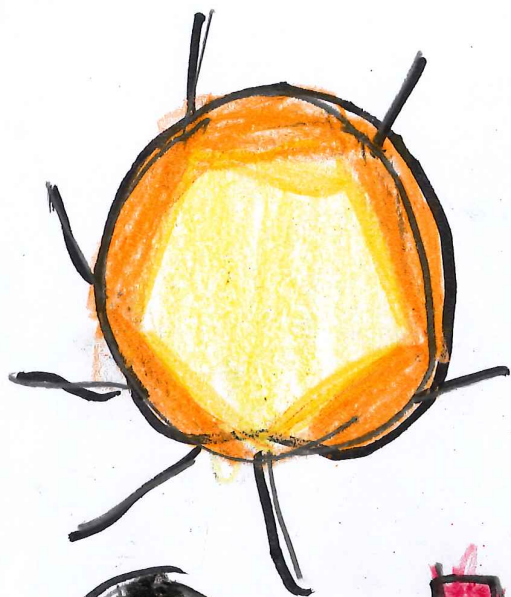
가운이가 키우는 날말은 “마음” 이야.
나는 작은 “마음”을 갖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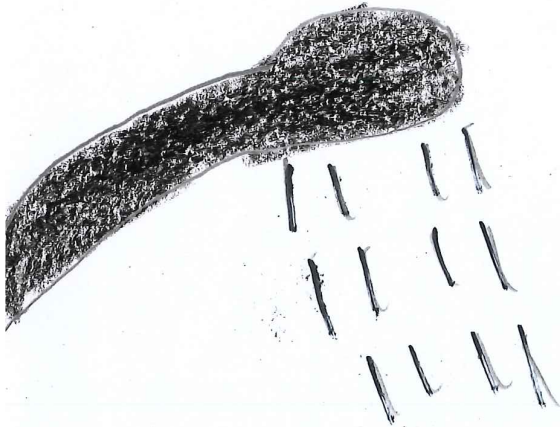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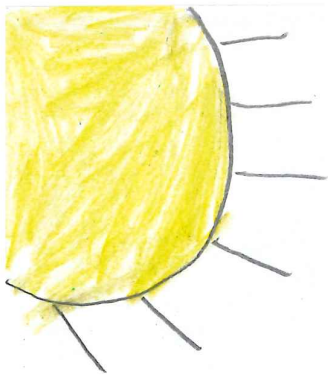
$\frac{7}{2} \times \frac{1}{2} = \frac{1}{2}$ $\frac{7}{2} \times \frac{1}{2} = \frac{1}{2}$ $\frac{0}{2} + \frac{1}{2} = \frac{1}{2}$ $\frac{1}{2} \times \frac{1}{2} = \frac{1}{4}$ $\frac{1}{2} \times \frac{1}{2} = \frac{1}{4}$ $\frac{1}{2} \times \frac{1}{2} = \frac{1}{4}$





다름이가 키우는 나라는 "세계"이야
나는 "세계"바른 사람이 될 거야!





지성이가 키우는 낚말은 “소중”이야.
나는 가족들이 “소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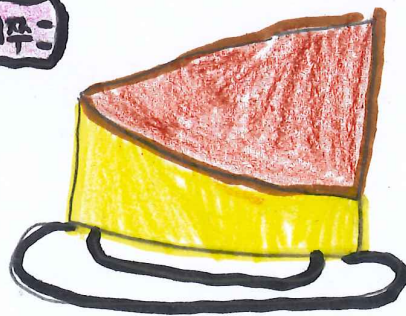
우리 말 예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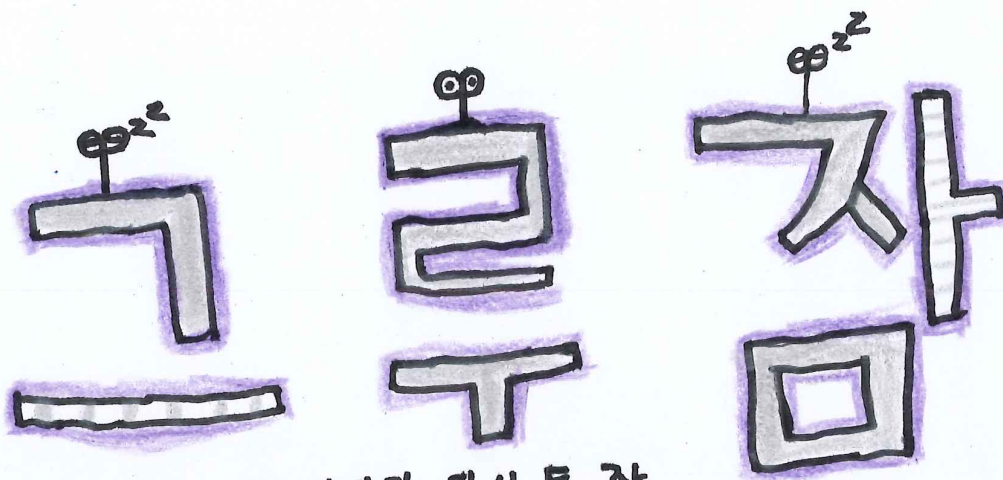
(이아권)

다 보드 레

달달하고 부드럽다



정유주



잠깐 깨었다가 다시 든 잠.

다 배
뜻 같

카시오 페이지 자비

(임서준)

(정가운)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박요원)

구름

여러 가지 빛깔을 띠

아름다운 구름

(이태민)

도담도담

머린아이가탈
어배이잘
놀며
자라는 모양





1기 1기 1기

명지바라

보드랍고 화창한
바라





(이하 뽕)

11보라
꽃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많은 꽃잎





지새는 달

먼동이 뜬 뒤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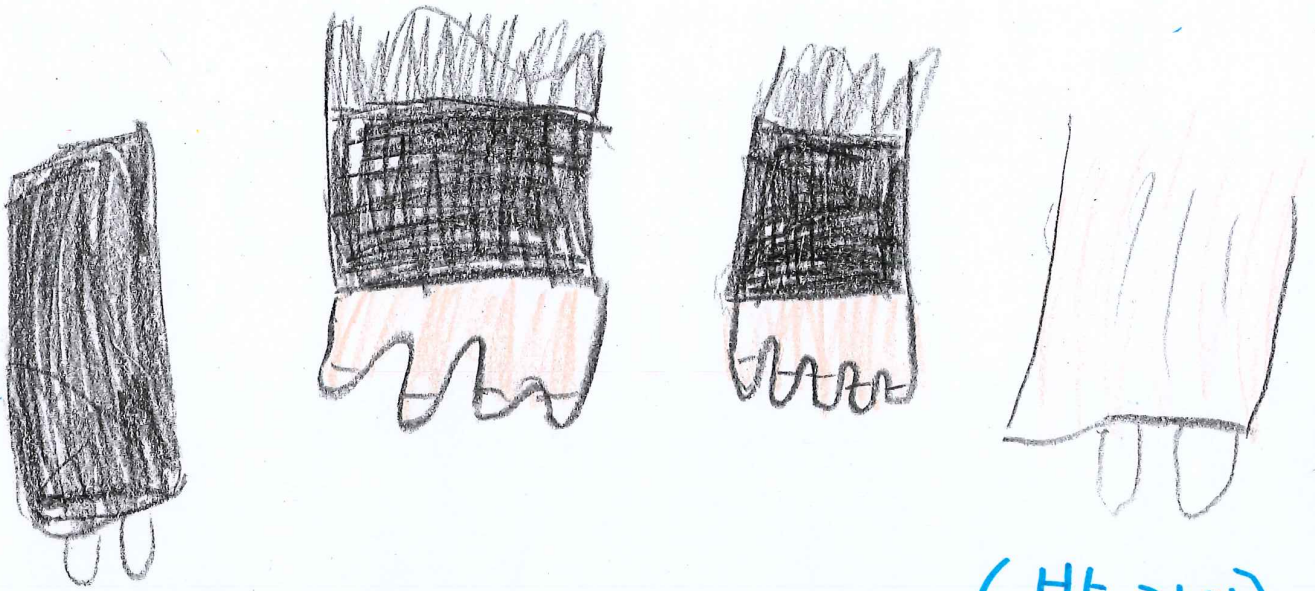
(박하관)



미리내

은하수의 반(제국)

(임시무)



(박지안)

너 나 둘이

서군 너 나 하고 부르며

터 놓고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



아름다운

(김민지)
(나무) 돌레가 한 아름이 넘도록 커다란



우

기

(정찬)

여러 가지 안 저스 함 기기 일
다대어 위사 나쁜 함 복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의 다 뜻 한 기운



모든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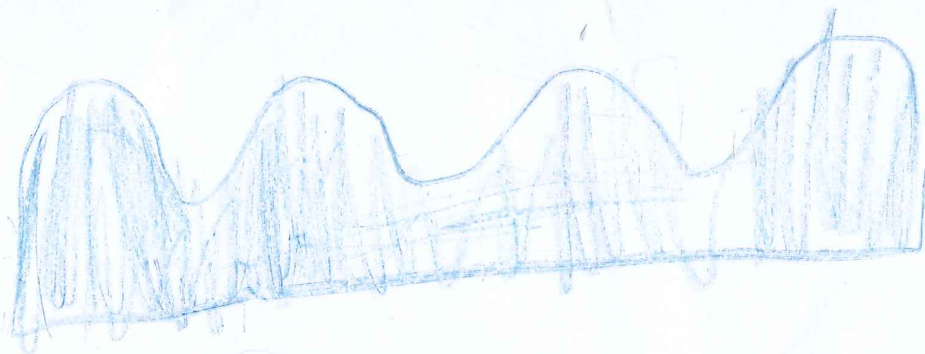
(이도운)

(김아쑤)



고리별

혜성을 뜻하는 우리말



천년



등성이 2층 이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

노
관

조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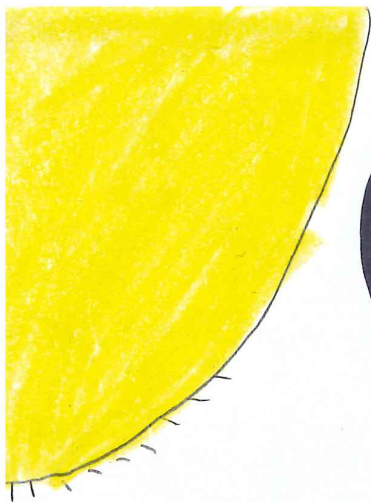


앞으로 좋게 발전

품질이 나품성.



(김정현)



(한지성)

등산

새벽에 동아 터서 환하게 비치는

행산



가 의 에스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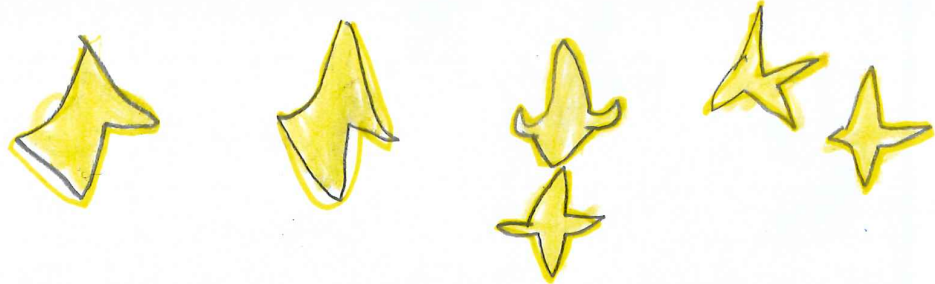
(한 다음)



기기가 화작
많이 피어 화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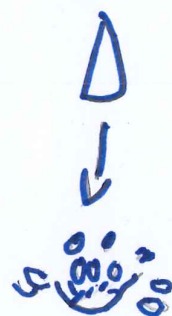
유리 (음식물)

햇빛이4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잔물결



(고도형)

77 H 기등하타



77 H 기등하고 아담하타



다소
사랑의옛말



(김!민)



[사진]

오아스라이

1. 보기에 가까워 할 정도로 많이
2. 기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가물가물하게
3.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날말을 모아
문장으로



날말이 모여 문장으로 자라요.

이리

동생과 밖에서 놀이를 했다. (박요원)

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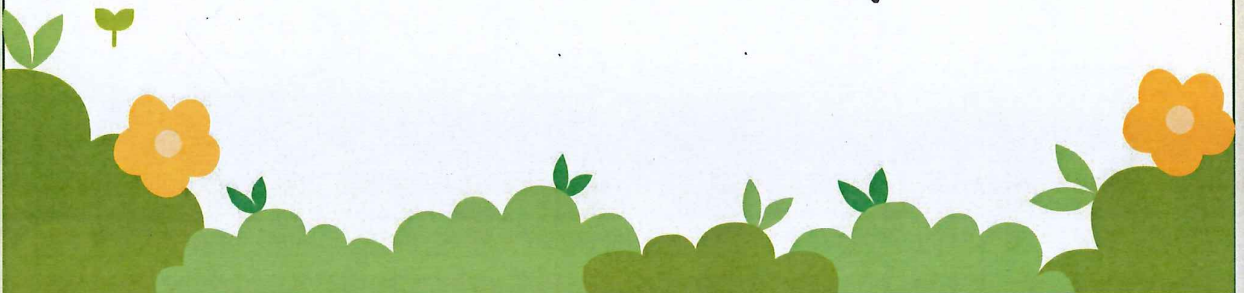
토요일은 내생일이다. (김민지)

달리기

맛있는떡볶이 마키를 먹었다. (박하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한다솔)





날말이 모여 문장으로 자라요.

캠핑

우리 가족은 캠핑을 갔다. (차시아)

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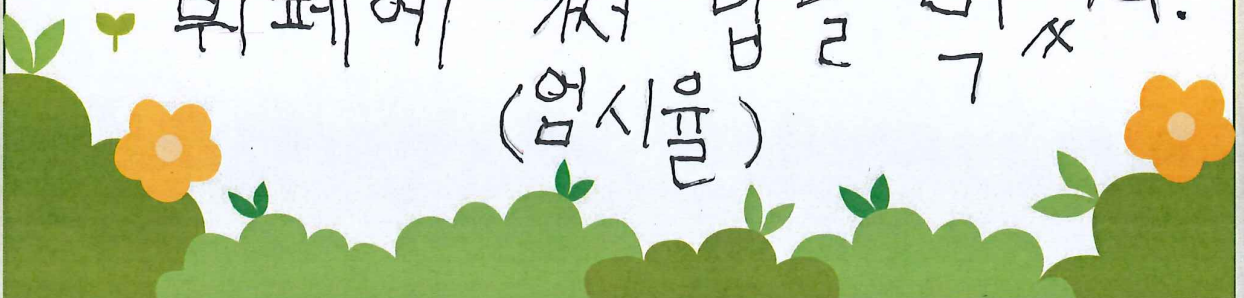
얼음이 너무 먹고 싶어. (김강남)

길게

우리 가족은 길게를 돌봐준다 (관현)

뷔페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다.
(엄시은)





낱말이 모여 문장으로 자라요.

햇님

하늘에 햇님이 반짝반짝 빛난다. (박지안)

심장

심장이 뼉뼉 뛰었다. (신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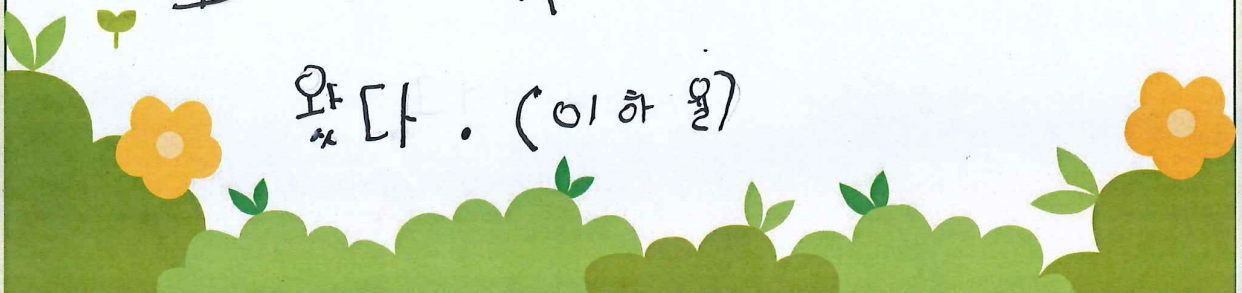
태권도

태권도에서 뛰어 놀았었다. (임서준)

고양이

고양이 두 마리가 나한테

왔다. (이하영)





날말이

모여

문장으로

자라요.

목욕

목욕을 하니까 졸림이 짝 풀렸다. (정찬)

엄마

신포동 시장에서엄마가슬러시를 사주셨다

(권순영)

식사

일요일 저녁식사로 고기도 먹고 소떡소떡도
먹었다. (김별)

놀이터

선생님과
갔다.

동생과

함께 놀이터에

(진태인)



날	말	이	모	여	문	장	으	로	자	라	요	.
---	---	---	---	---	---	---	---	---	---	---	---	---

야구

아침에 형아랑 같이 야구를 했다. (모운)

지하철

일요일에 지하철을 타고 부평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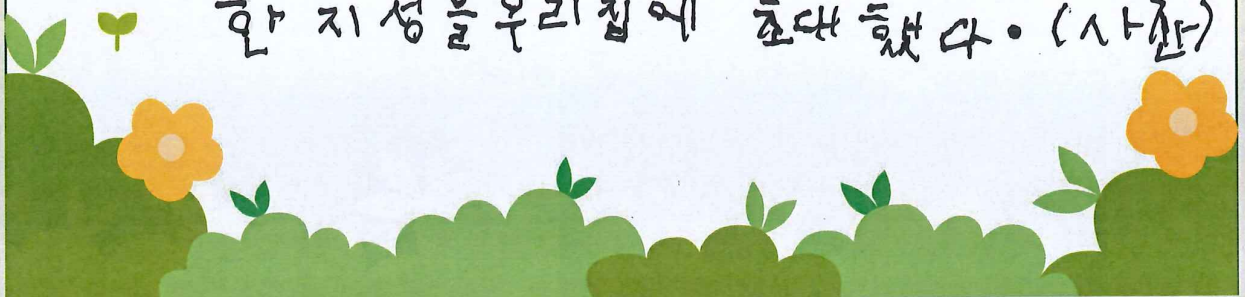
(이아린)

게임

게임을 많이 해서 기분이 좋았다. (임시우)

초대

한 지성을 우리집에 초대했다. (사선)





날말이 모여 문장으로 자라요.

울미도

울미도에 가서 열기구를 탔다. (정유주)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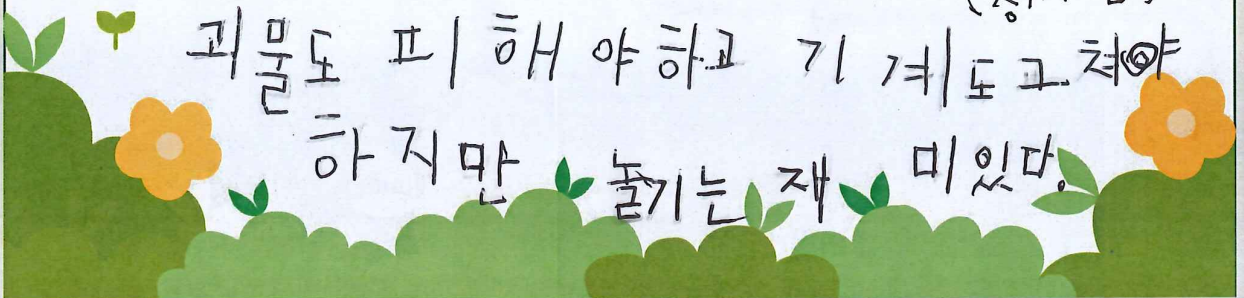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시장에 갔다 왔다. (김정현)

전화

전화를 해서 편의점 가는 걸 허락 받았다.
(이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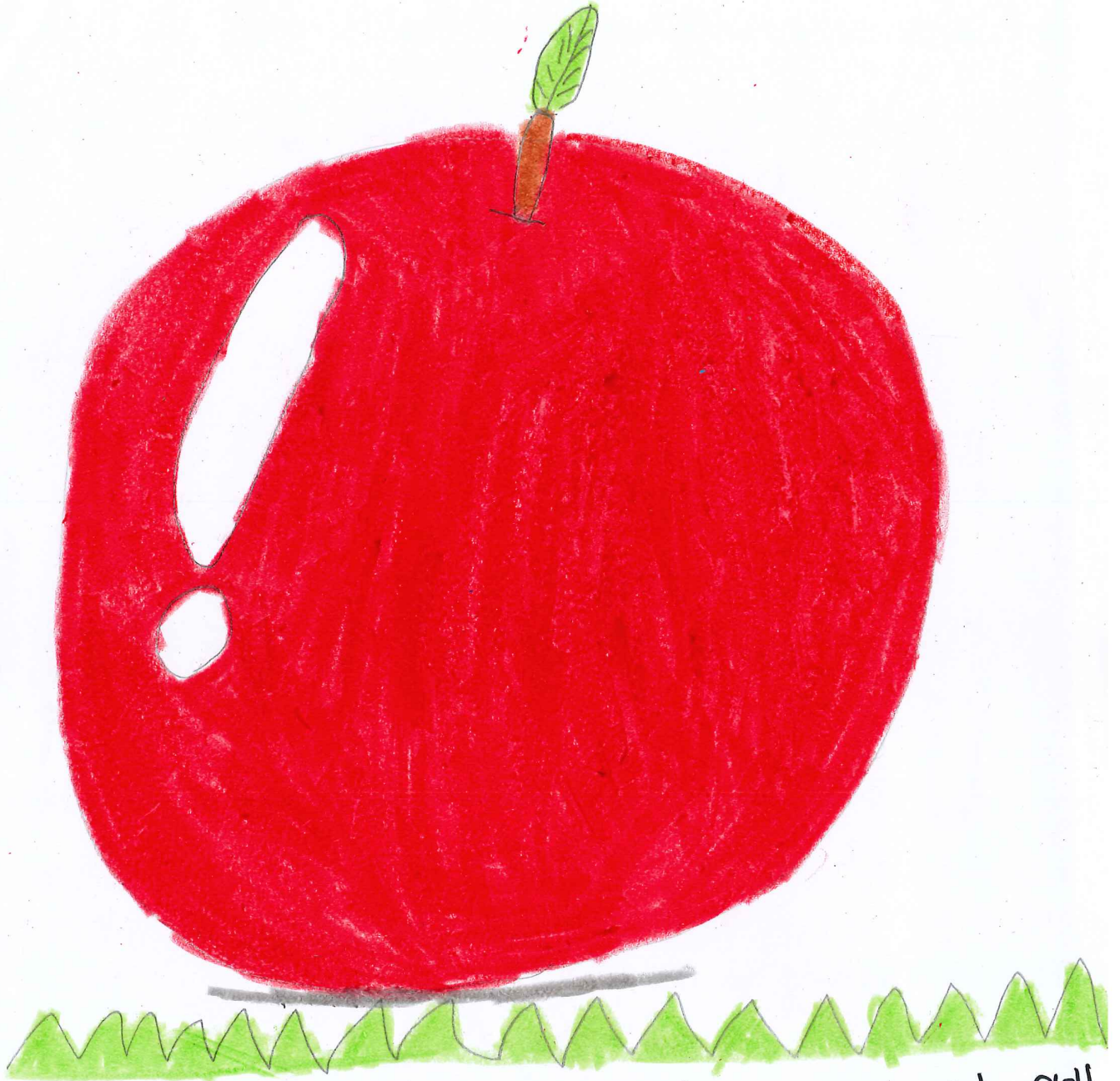
놀이

(정가은)
괴물도 피해야 하고 기계도 그쳐야
하지만 놀이는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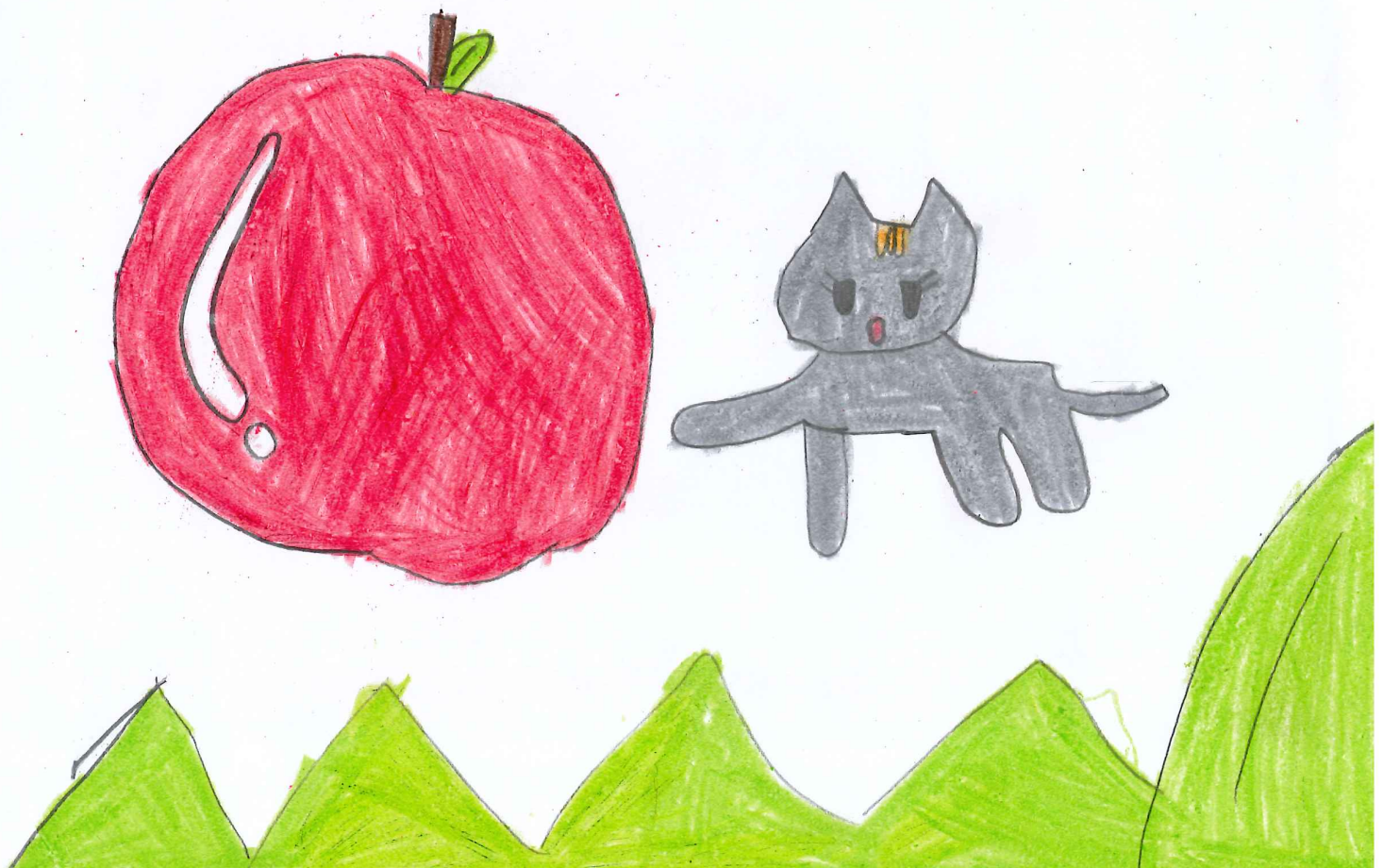


어느 날 사과가 툭!



어느 날 아주아주 귀대한 사과가 땅 위에
 똑! 떨어졌어요.
 그 사과는 빨갭게 익어 있었어요.

사과를 발견한 것은 고양이였어요.
"우와! 엄청큰 사과 다."
고양이는 사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과가 너무 커서 고양이가 혼자 옮길 수 없었어요.



고양이는 이웃에 사는 곰을 부르러 갔어요.
"곰아, 곰아. 아주 커다란 사과가 있어.
같이 가지러 가자."



곰은 고양이와 함께 사과를 가지러 갔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곰짝도 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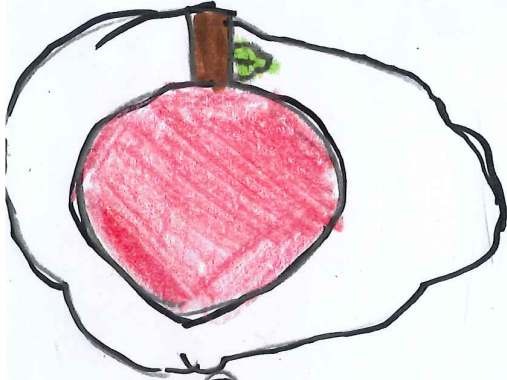


그래서 굼은 염소를 부르러 갔어요.
“염소야 염소야 아주 커다란 사과가
있어. 같이 가지러 가자!”

염소들은 곱고 양이와 함께 사과를 몰아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세우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염소는 제일 친한 돼지에게
찾아 갔어 요 돼지야, 돼지야, 커다란
사과가 있어. 같이 가지러 가자”



도해지는 염소, 곰, 고양이와 함께 사과를
오려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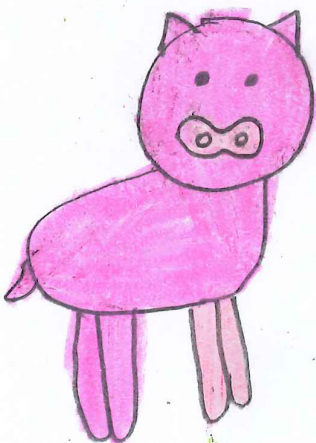


아직만 너무 커서 오려질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돼지는 산책하고 있는 코끼리를 찾아갔어요.

"코끼리야, 코끼리야. 커다란 사과가 있어. 같이 가지러 가자."

코끼리는 돼지를 따라 성큼성큼 사과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드디어 고양이 옆에서 곰이, 곰 옆에는 염소가,
염소 옆에는 도마지, 옆에는 코끼리가 섰어요.
"영차! 영차!"

고양이, 곰, 염소, 도마지, 코끼리는 힘을 합쳐
사과를 굴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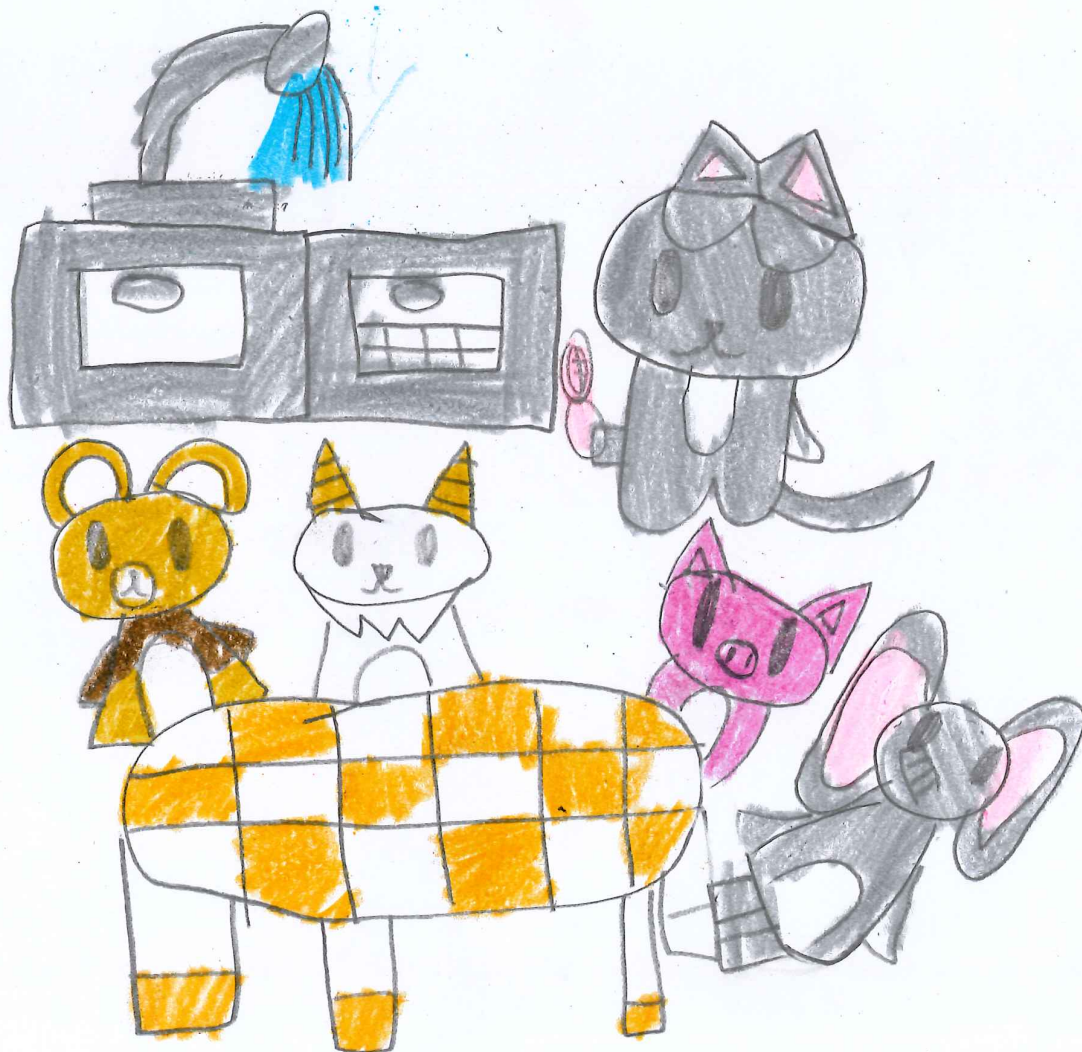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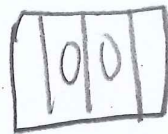


굴리고 굴리고 굴려서 고양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커다란 사과를 잘라 맛있는 사과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와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어요.

고양이와 곰, 염소, 돼지, 코끼리는 맛있게 냠냠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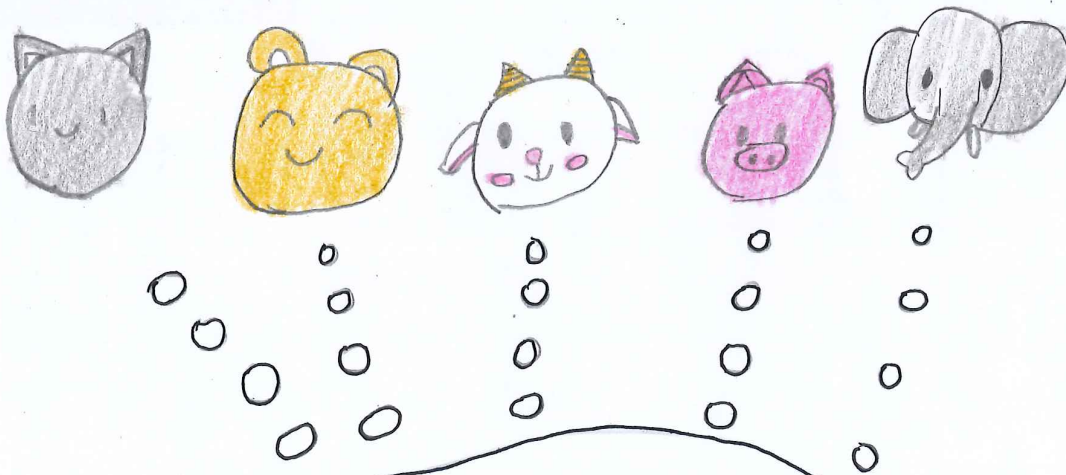


커다란 사과를 사라졌어요.

하지만 사과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구요?

커다란 사과는 고양이, 곰, 염소, 돼지, 코끼리의 마음속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출판일 2024학년도
지은이 인천송의초등학교
1학년 1반 어린이